

與 “文 정부시기 나랏빚 1000조... 민생정책 논할 자격 없어”

문 전 대통령 선거현장 지원 비판
한동훈 “전직 대통령이 선거 운동 문 정부, 무능하고 비열하기까지”



유일호(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민생경제 특위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면서 ‘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3일 일제히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일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과 부산 사상구에서, 전날(2일)에는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울산 동구·중구·남구 등을 방문해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다. 이 전에는 경남 거제를 방문한 적도 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후보 지원을 넘어 ‘철십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눈 떠보니 후진국” 소리도 들린다” 등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경남 거제 출생으로, 오랜 기간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게다가 정치 입문 후 초선 의원을 지낸 곳은 부산 사상구다. 이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부산경남(PK) 지역에 방문하는 것은 지역기반과 재임 시절 인기 등을 활용해 후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도 ‘PK 민심이 심상찮다’는 우려가 나오는 차였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울산 방문 이유에 대해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라며 “특별한 연고가 있는 지역이나 후보를 찾아 조용히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설

명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에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강원 원주 지원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에 참전했다. 퇴임한 대통령이 선거 접점을 입고 선거 운동을 하는 이런 것을 봤다. 급하긴 급한가 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기

뿐만 아니라 비열하기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고맙다. 정권이 바뀐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나라 때문에 정권교체한 것 아니냐”며 “그 나머지 사람들(야당)이 우리가 제대로 정치하는 것을 발목 잡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대로 일하게 해달라. 진짜 정권교체를 완성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한 위원장은 “양문석(민주당) 후보 문제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우리에게 대출받지 못하게 했다”며 “그런데 양 후보는 자기 딸을 내세워 사업자 등록을 조작해서 새마을금고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우리한테는 집을 못 사게 해놓고 자기들은 뒷구멍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며 “그렇지만 고맙다. 우리가 왜 이겨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공동 위원장도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년 동안 나랏빚은 680조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만에 400조가 늘어 1000조가 넘었다”며 “문 전 대통령은 민생 정책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 북한 김정은 정권과 이인삼각으로 만들어낸 가짜 평화쇼, 28전 28패로 끝난 서울에 아파트 없는 국민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부동산 정책, 권력을 통해 짝어 누른 불법 탈원전 정책 모두 문 전 대통령의 통치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정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홍보 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직접 이념 정치로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편을 가르고 선동하는 문 전 대통령의 말은 오히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며 “국민에게 영원히 ‘무능’과 ‘내로남불’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되돌아보라. 이제라도 성난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정·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野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못박아... 사과해야”

“장관 시절 실효성 있는 대안 없어
선보상 할 수 없다며 구제 가로막아”



강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스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에게 “원희룡 후보는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애끓는 가슴에 대못을 여러 번 박았다”며 지지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원희룡 후보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절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어놓을 것처럼 말하더니, 선례를 남길 수 없어 정부가 전세 피해 선보상을 할 수 없다며 피해 구제를 가로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희룡은)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피해자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정부 대책이 없어 생긴 참사인데도 책

임 회피만큼은 역대급이었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원 후보 유세 현장에서 시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 후보 지지자들은 1인 시위에 나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폭언과 함께 발길질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바다에 내동댕이쳤다고 한

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원 후보의 후원회장이자 며칠 전 시민에게 버럭했던 그 이천수 씨는 정당한 1인 시위를 유세 방해라고 주장하며 원 후보 측 지지자에게 112에 신고하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전세사기 피해자인 사람이 지하철역 앞에서 피해자를 상징하는 영정 사진을 들고 서 있었다고 한다. 1인 시위는 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원희룡 후보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것인가”라며 “강자에겐 굽히고, 약자에겐는 불통인 원 후보가 과연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일자 일방적으로 사업 백지화를 내렸던 원 후보 때문에

‘김건희 로드’를 위한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원 후보가 김건희 여사 일가를 비호해 피해는 고스란히 양평군민의 몫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원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전두환 씨를 찾아가 세배를 한 일도 있다”며 “강자에겐 앞다려 절하면서 약자에겐 후보와 지지자들이 대못을 박고 발길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원희룡 후보가 전세사기 피해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자 계속 시위할 것이라고 한다”며 “원 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원 후보의 지지자들은 발길질로 국민을 두 번 울렸다. 원 후보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세 번 울리지 않도록 민주당이 지켜보겠다”고 압박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외교행낭을 통해 회송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지의 확인 및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재외투표율 62.8% 기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에 9만2923명의 재외유권자가 참여해 62.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 재외투표에 재외유권자 14만7989명 중 9만2923명이 참여해 62.8%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외투표는 지난달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 220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됐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주 4만7647명(62.8%), 미주 2만6341명(56.5%), 유럽 1만4431명(73.5%), 중동 2904명(74.0%), 아프리카 1600명(79.3%)이다.

이날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된 재외투표지는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확인 및 분류 작업이 진행됐다. 이어서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 4월 10일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폭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관에서 국내로 재외투표지를 회송할 방법이 없을 때에는 공관에서 직접 개표한다.

한편,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은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韓 기업, 사우디서 대규모 수주”

삼성E&A·GS건설, 파딜리 가스증설
“정상외교 성과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

9조7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6월 수주한 ‘아미랄 프로젝트’의 50억달러(약 6조7000억원)를 넘어 우리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주 역사상 최대 규모다.

대통령실은 이번 수주가 2022년 11월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등의 결과물로,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정상외교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당시 열린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간 굳건히 다져온 토대 위에 새로운 인프라 경제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념식에서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는 약 24억달러 규모의 ‘자푸라 2단계 가스플랜트’ 계약에 서명했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수주한 인프라 사업은 아미랄 프로젝트, 자푸라 2단계 가스플랜트 등 95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수주했고, 전세계 해외건설 수주액은 333억달러에 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수주로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61억1000만달러의 2배를 넘는 127억2000만달러에 달하게

된다”며 “올해 수주 목표인 400억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양국 정상 간에 구축된 굳건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국부펀드(PIF), 네옴 등 주요 발주처의 인프라, 플랜트, 스마트시티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추진되는 석유화학 플랜트, 철도 등 교통인프라, 해수담수화 시설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도 정부, 공기업, 금융기업 등이 원팀으로 지원하겠다”며 “정상외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